



시로 읽는 성보순례
땅의 별자리들
국보 제40호 정혜사지심상층석탑
통일사리사대 ▶2면

현대불교

남의 약점을 들춰내지 말고
언제나 스스로를 단속하라.
정의로 자기 마음 속을 살펴라.
(〈잡야함경 제40권〉)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4월 17일) · 주간

대표단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89호 2012년 6월 6일 수요일



“스님, 불 들어갑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묘공당 대행 스님의 법구가 안치된 연화대에 불이 당겨지고, 불길이 올랐다. 그 불길 속에서 한 가지 불씨로 만 가지 꽃을 피운 스님의 생전 가르침이 들리는 듯 했다. 사진=박재관 기자

“다함 없는 원력 계승하겠습니다”

5월 26일, 묘공당 대행 선사 영결·다비식 전국비구회장 엄수

한국 비구니계의 큰 스승이자 ‘마음 공부법’을 혁신한 시대의 선지식, 한마음선원장 묘공당 대행 스님의 영결식이 5월 26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전국비구니회장으로 봉행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스님을 비롯해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포교원장 지원, 중앙종회의장 보선, 전 포교원장 혜종 스님과 전 비구니회장 광우, 명성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 등 사부대중 3만여 명이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다. 명종이 울리면서 시작된 영결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전국비구니회 총무부장 경륜 스님의 행장 소개로 이어졌다.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은 영결 범어를 통해 “대행 스님은 범문에서 자성은 생사가 없다고 했다”며 “무량한 공안이 부처와 조사의 망어요, 중생이 망상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와 조사의 생사가 없는 본성이라는 고 설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추모사에서 스님의 전법 공덕을 추모했다. 자승 스님은 “대행 스님은 새로운 포교의 지평을 열었다. 최초, 최고라는 수 많은 업적을 이룩하며 실천적이

고 현대적인 다양한 포교 방안을 제시해왔다”며 “싱그럽고 건강하게 살자고 하신 스님의 원력을 계승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전국비구니회관 건립과 함께 전법 현장에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한국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로 우리 비구니의 위상을 드높이신 자람”이라고 추모했다.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도 “한 가지 불씨로 만 가지 꽃을 피우며 중생제도를 하신 대행 스님의 원력을 슬퍼한다”고 애도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대행 스님에 대한 추모도 이어졌다. 지원스님은 조사를 통해 “대행 스님은 사람에 관계 없이 그릇대로 범법을 내리시어 한마음의 차별없는 참 세상을 보여줬다”고 스님을 기렸다.

송석구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장으로 조사에서 “수 차례의 결집으로 전승돼 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팔만대장경이라면 큰 스님께서 일생동안 베푸신 법구는 한 마디 한 마디가 대장경의 날개가 되고 고금의 일승원음으로 우리 곁에 남았다”고 추모했다.

영결식 이후에는 1천여 만장과 함께 스님의 법구를 다비장이 설치된 주석처 서산정으로

이운하고 연화대에 안치했다.

“불, 범, 승, 스님 불 들어갑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스님의 연화대에 불이 당겨졌다. 연화대는 순식간에 화염으로 휩싸였다. 스승을 잃은 대중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김종길(신도회, 64) 씨는 “늘 높고 낮음 없이 모든 이를 자비로 껴안으신 스님”이라며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흐느꼈다. 윤동교(정년회, 35) 씨는 “나는 본래 부처다. 일체는 하나 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화대의 불길이 하늘로 올라갔다. 불자들의 흐느낌 사이로 대행 스님의 육성이 들리는 듯 했다.

“같이 걸어 감시다. 영원토록 같이 걸어감시다. 헤어진다 해도 마음이 하나일 때 그곳에 헤어짐은 없습니다. 실령 죽음이 갈라놓는다고 해도 한마음에서는 이별이 없습니다.”

한편, 대행 스님의 초재와 2재는 부처님오신날인 5월 28일과 6월 4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봉행됐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묘공당 대행 선사의 영결식이 5월 26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전국비구니회장으로 봉행됐다.

法語

大行 스님 平素에 法門하시기를 自性은 生死가 없다고 하시었는데 금일의 永訣式은 누구의 永訣입니까?

無量한 公案이 부처와 祖師의 妄語로 衆生이 妄想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와 祖師의 生死가 없는 本性이나라

佛紀 2556년 5월 26일

大韓佛敎普濟宗 元老會議 副議長 密秘 焚香

대행스님 영결·다비식 화보 12~13면

“임기 내 쇠신 전념할 것”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 확대 종무 간담회서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쇠신에 전념하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자승 스님은 5월 25일 총무원 4층 접견실에서 열린 ‘중앙종무기관 확대 종무 간담회’에 앞서 나온 임기 관련 발언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자승 스님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동안 있어 왔던 정치 관계나 계파 이익에 따른 요구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쇠신하겠다는 것”이라며 “소신껏 임기 내 최선을 다하겠다. 준비하고 있는 쇠신안이 발표되면 부실장들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임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자승 스님은 “결사추진본부 자문회의에서 총무원장부터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며 “저 역시 뜻을 같이 하고 진정으로 쇠신하기 위해 제임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굳혔다”고 밝혔다.

오늘 발언에 전반에 대해서는 “부실장 스님들과 상의하지 못해 미안하다. 추호의 흔들림 없이 부실장스님 중심으로 쇠신해 나가

자”며 “부실장 스님들과 승가공동체 쇠신위원회, 결사본부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중앙종무기관 근무 분위기 쇠신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스님은 “회식과 접대를 외부에서 해하고 자연스레 사회적 관습에 물들었다. 이런 관습을 하나씩 버려야 한다”며 “손님 공양도 발우공

중단 지정위해 제임 안해
인사, 쇠신위에 추천 일임
청규 제정 후 소신 행정

양, 총무원 후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화선지에 먹물이 퍼져가듯 관습을 바꾸자”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자승 스님은 모든 임명직이 ‘승가공동체쇠신위원회’에서 추천될 수 있도록 하고, 적합한 인재를 복수 추천하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교역직 인사들도 쇠신 의지를 공감하고 현대적 청규 제정 등을 통해 소신 있는 종무행정을 펼쳐기로 결의했다.

신종일 기자

동국대, 인문 문학의 숲에 빠지다

중앙도서관 ‘명사 지식강연’ 개최

문학 100년사 사회집 발간

동국대 인문학 강좌와 문학사 발간을 통해 학생들의 지식향상을 돕는다.

동국대 중앙도서관(관장 박경준)은 ‘청춘의 재발견 - 대학생, 인문학의 숲에 빠지다’를 주제로 6월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에는 △ 김수영을 위해’의 저자인 철학자 강신주(6월 7일) △ 김립을 즐겨라’의 저자인 문학자 최준영(6월 14일) △ ‘그래도 나는 서울의 좋다’의 저자 건축가 오영욱(6월 21일) 등이 참여해 대학생들과 즐거운 소통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강의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동국대 문화관 4층 초허당세미나실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3면

에서 열린다. 동국 문학의 100년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사회집(詞華集)’도 발간됐다.

동국문학발간위원회(위원장 강민)는 동국대 출신 문인 27명과 원로, 중진 6명의 습작과 동인 활동을 엮은 (최후로 생각할 것을 생각하는 문학)을 펴냈다.

책을 엮은 신경림 시인은 “문학을 향한 순정을 모아놓은 이 책은 사료적인 가치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문학을 건강하게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종일 기자



www.wfb26korea.org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회

2012. 06. 11(월) ▶ 16(토) 전라남도 여수 디오션리조트, 흥국체육관

전체 일정

6월 12일(화) 오후 4시 30분 / 여수 흥국체육관	개회식
6월 11일(월) 오후 1시 / 디오션리조트(벨라스타 홀)	WFBY 포럼
6월 13일(수) 오전 8시 30분 / 디오션호텔(그랜드 볼룸)	WFB아카데미 포럼
6월 14일(목) 오전 8시 30분 / 디오션호텔(그랜드 볼룸)	제3차 WFB세계불교비즈니스 포럼
6월 13일(수) 오후 2시 / 여수 흥국체육관	세계 고승 수계대회
6월 14일(목), 15일(금) 오후 7시 30분 / 여수 흥국체육관	창작뮤지컬 “카르마의 노래”
6월 15일(금) 오후 5시 / 디오션호텔(그랜드 볼룸)	폐회식

세계 고승 수계 대법회

우리나라 큰스님과 세계 대덕고승을 모시고 삼귀의(따사라)와 오계(판차살라) 수계 대법회를 병행합니다. 수계법회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수행은 삼귀의와 오계를 지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명: 진제 법원 대종사 / 도림 법전 대종사 • 갈마아사리: 법일 보성 • 교수아사리: 불심 도문 • 심사: 라마 룬정(인도 국제 불교 연맹 창설자) 프라 몸의치라야(태국 왕 특사) 명신(중국 불교협회 부회장) • 칠증: 필랄라와 담마라타나(프랑스), 수다나 마하테로(말라야), 최철자보 담바자보(몽골리아), 방갈라 우파티나 테로(스리랑카), 명광(대만), 캄롤 린포체(티베트), 락 푼(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6월 13일(수) 오후 2시부터 (30분전 입장 완료) • 장소: 전남 여수 흥국체육관 내 • 수 계 비: 3만원 • 접수방법: 현재 다니고있는 사찰이나 홈페이지(www.wfb26korea.org)에서 ‘세계고승수계대법회’ 클릭 후 신청 • 문의처: 전화 (061)724-5988 팩스 (061)721-7162 *수계식 마친 후 ‘팔만대장경’ 무료 관람
---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중앙승가도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여수시

주관 |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회조직위원회

TEL. 061654-1008 FAX. 061654-0081
ADD. 95500-817 전남 여수시 문수로 80(3층)